화순 도암~장흥 유치 지방도 817호선 개통

전남 남부지역 중심축…거리 3km·시간 30분 단축되고 사고위험 줄어

전라남도는 화순 도암면 용강리와 장흥 유치면 대천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817호선 도암~유치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돼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0.48㎞(이전 개통 구간 4.0km 포함) 전 구간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5월 시작한 도암~유치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880억 원을 들여, 착공 14년만에 완료하게 됐다. 가미태재터널 등 터널 2개소와 교량 17개소의 시설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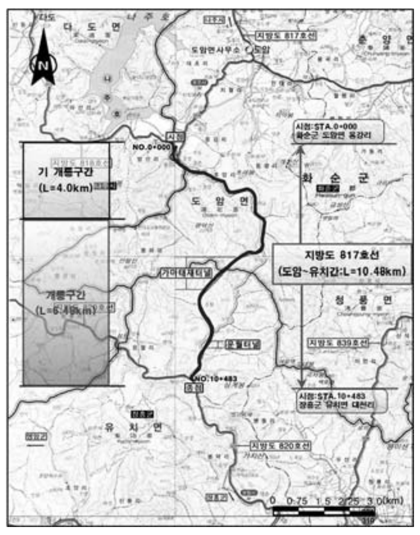
기존 도로 선형이 불량하거나 비포장이었던 13㎞를 2차로 10.48㎞로 확포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45분 이상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30분이나 단축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교통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이 도로는 전남 남중부지역인 장흥과 화순, 광주를 연결하는 중심축 기능을 하게 된다.

장흥 보림문화제와 물축제, 화순 운주문화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체험하기 위한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기반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익과 물류비용 절감, 주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도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사업들이 조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권취재본부=오승택 기자 ost6002@



도암 유치 간 지방도 개통 위치도.

광주 비아중, 고교로 바뀐다

광산구 원거리 통학 '숨통'

광주 비아중학교를 2023년까지 고교로 개편하는 방침이 확정됐다.

광주 광산구의 만성적인 고교생 원거리 통학 불편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비아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무양서원의 고교 설립 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아중은 2019~2020년 기존 8학급에서 4학급만 신입생을 받고 2021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2020년부터 고교 신입생을 받아 2023년까지는 고교로 완전히 전환하기로 했다.

인근 초등학생들은 월계중 등으로 분산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무양서원으로부터 설립계획서를 접수해 중·고교 학생 배치 계획 검토, 학부모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기존 중학생 배치 관련 협의 등을 거쳤다.

광주 광산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통학하는 학생 수는 연간 1천명을 넘기도 해 고교 설립 요구가 있었지만,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설립과 이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아중의 고교 개편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광산구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했다.

주연규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교원 전문성, 학교 시설, 한시적 중·고 통합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가 없도록 차질없이 고교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고훈석 기자 ghs@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조용익)은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2019년도 전남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전통, 시각, 공연, 문학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문화예술 해외 교류 지원 ▲공연예술 작품 제작 지원 ▲공간 연계형 창작 지원 ▲남도문예르네상스 기획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이뤄진다. 총 사업비는 31억 원이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전문가 컨설팅(1회)과 자문회의(2회), 전남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열린 공청회(2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춰 2019년 사업을 새로 개편해 설계했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에서 장르가 모호한 '다원예술지원'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해외 교류 지원은 항목을 구체화했다.

공연예술 작품 제작 지원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전남지역 이외 공연을 1회 추진 가능토록 했다.

기존 남도문화 예술 기획사업으로 묶여 있던 남도문예르네상스, 영상기록·정보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3개 사업의 경우 도정 방향에 맞춰 개별사업으로 개편해 전남만의 특화된 문화 브랜드 개발을 위한 남도문예르네상스 기획과 청년예술가의 창작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으로 개편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소방 화보집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지키는 광주시 소방관의 모습을 담은 '광주소방 화보집'을 발간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등 4개 자리 개방형 공모

14~18일 원서접수, 내달 초 합격자 발표…노조 반발 거세 변수

광주시가 일부 국·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민주인권평화국장 등 4개 자리 개방형 직위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가 개방형 직위 공모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주인권평화국장·노동협력관·대변인·문화예술회관장 등 4개 자리에 대한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3급 부이사관 상당인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승화 전략 수립 및 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을 맡는다.

4급 서기관급인 노동협력관은 비정규직 고용 개선, 노동센터·비정규직센터 지원 등 노동정책을 총괄한다.

4급 서기관급인 문화예술회관장은 시립예술단·공연 관리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반을 맡는다.

4급 서기관급인 대변인은 시정시책 언론 관련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원서접수는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4일이다.

2차 적격성 심사는 30~31일 예정돼 있으며 서류와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자질을 검증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초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개방형 직위의 임기는 모두 2년이며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투쟁 강도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학생독립운동 90주년 전국화 발걸음

"3대 항일독립운동 중 하나…정신 계승 미흡"

북한 학생 참여 여부 주목

광주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다양한 정신 계승 사업이 연중 이어진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학생독립운동 90주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생독립운동의 전국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원과 교육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직무 연수를 하기로 했다.

오는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역사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전국화 사업 협조를 요청하고 그동안 연구 성과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한 학교 학생 대표를 오는 10월 초청해 광주 학생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는 등 체험 학습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국내외 민주·인권·평화 교육 관계자, 교원,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는 학생독립운동, 광주정신 등을 공유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오는 3월부터 연중 운영된다.

지역 기관·단체와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교육도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학생 역사 동아리,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항일 음악회·전시회 등 학교로 찾아가는 독립운동 이야기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을 전후해 북한 학생, 교사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여는 방안도 제안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북한 학생, 교사를 초청한 90주년 기념행사를 제안했다.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북측 학교 학생 대표 100명 등 300여명을 초청해 사적지를 방문하고 음악회, 농구대회 등으로 우호를 다진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이 2006년 역사학계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명단에 따르면 1929년 당시 전체 320개 참가학교 가운데 북한 지역 학교는 모두 133곳(41.6%)에 달한다.

/이유빈 기자 yblee@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가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고흥, 함평, 해남
전화문의 : 062)227-0000 / 010-9556-0000 (직통)
팩 스 : 062)227-0084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사무실 임대
⊙ 지하철 농성역 4번출구 옆
⊙ 화정동 776-12 3층 60평
⊙ 광주버스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 · CGV영화관 인접
⊙ 광주 새우리병원 건너편
⊙ 2층 북교당 한약방 운영중
☎ 062)362-6900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